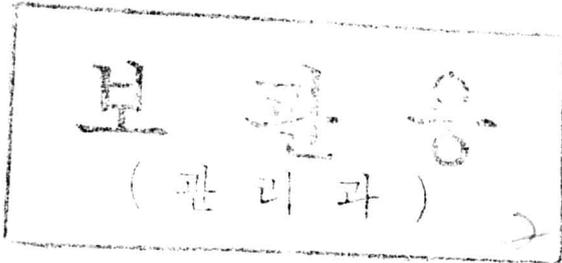


南北對外活動共同步調方案



1973. 6

南北對外活動共同步調方案

1973. 6



研究委員 李 基 遠

目 次

1. 序 論	1
2. 南北對話의 背景	5
3. 南北關係 發展 展望	13
가. 南北韓의 立場差異	13
나. 南北立場差異의 妥結方式 診斷	17
4. 對外活動 共同步調에 對한 南北韓 立場比較	23
가. 南北間의 對外共同步調 觀念比較	23
나. 南北韓의 戰略的意圖比較	25
5. 對外活動共同分野 推定	29
가. 對外活動共同步調可能性	29
나. 對外活動共同步調分野	31
6. 對北協商戰略	37
가. 基本立場	37
나. 北韓의 予想提案事項	39
다. 우리의 主導的提案事項	40
라. 最終合意予想分野	42
마. 其他事項	42
7. 結 論	43
附 錄	49

1. 序

論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國際情勢는 美中共緊張緩和를 起點으로 하여 急激한 變動을 일으키기 始作하였고 이에 따라 南北韓關係도 새로운 大轉換의 契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即 1972年 7月 4日 大韓民國 中央情報部長 李厚洛과 北韓 勞動黨 組織部長 金英柱間에 合意公布된 「南北 共同聲明」이 바로 그것이다.

同聲明書속에 記錄된 祖國統一 3大原則 - ①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立的으로 解決하여야 한다. ②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拠하지 않고 平和的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③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한다 —은 4伴世紀동안 特徵지어온 冷戰的南北關係를 清算하고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基本指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南北關係는 敵對關係로 부터 和解協調關係에로 나아갈수 있는 歷史的인 新契機가 이룩된 것이고 韓民族의 至上念願인 國土統一이 平和的方法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길이 터인 셈이다.

世界平和와 東西間의 緊張緩和를 希求하는 國際與論과 平和的統一을 熱望하는 韓國人의 悲願으로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은 1972年 11月 2日부터 11月 4日까지 平壤에서 進行된 南北調節委員會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具體化되었다.

即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을 推進하고 北과 南사이의 關係를 改善發展시키며 各分野에서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 등 合意된

祖国 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하기 爲해 南北 調節委員會를 構成하고 同委員會機能으로서 다음의 內容을 合意했다.

①合意된 祖国 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 實現을 保障한다.

②北과 南의 政党, 社会团体, 個別的 人士들 사이의 広範한 政治的 交流를 實現하는 問題를 협의 決定하며 그 實現을 保障한다.

③北과 南사이의 經濟, 文化的 및 社会的交流와 힘을 合쳐 같이 事業하는 等의 問題를 協議 決定하여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④北과 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 대치상태를 解消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⑤對外活動에서 北과 南이 共同步調를 取하며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긍지를 表明하는 問題를 協議 公布하며 그 實行을 保障한다.

⑥對外活動에서 北과 南이 共同步調를 取하며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긍지를 表明하는 問題를 協議公布하며 그 實行을 保障한다.

이와 같은 南北間의 合意內容을 土臺로 하여 南北關係는 바야흐로 새로운 段階로 접어들게 된것이고 民族을 共通價值基準으로 하여 平和統一을 里程標로한 行動의 広場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南北間에는 전낼수 없는 江이 가로 놓여져 있다. 그것은 共產主義를 基本的價值로 삼는 北韓과 自由民主主義를 指向하는 韓國間에 存在하는 思考方式의 差異, 生活方式의 異質性 等으로 부터 提起되는 問題點에 관한것이다.

北韓共產主義者는 韓半島赤化를 基本目標로 設定하고 南韓의 人民

革命을 공언하고 있는 힘의 철학을信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민족을 基本價值基準으로 하고 있는 祖國統一三大原則을 實踐함에 있어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의 不當한 行動에 처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南北韓 對外活動의 共同步調를 摸索하는 本方案은 平和統一을 促進하기 爲해 戰略 戰術적으로 다음의 事項을 考慮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韓國의 國際地位—— 韓半島上的 單一代表權 ——가 繼續 維持되어야 하고 두개 韓國의 現實化를 基底로 한 自由友邦國의 北韓承認 趨勢가 가능한 限 沮止되어야 겠다는 것이다.

둘째 南韓의 人民革命誘發을 基本目的으로 한 軍縮 平和協定提議等 北韓의 偽裝平和攻勢가 國際社會에서 封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北韓社會의 開放化를 促進하고 段階的인 對北接近戰略의 具體化를 爲한 與件助成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事項이 考慮되어야 하는 理由는 南北韓의 對外活動의 共同步調로 因해 大韓民國의 安保를 훼손하는 結果가 招來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 南北對話의 背景

韓半島의 緊張緩和問題가 提起되고 南北韓間에 對話가 開始되기 施作한것은 國際情勢變化와 密接한 相關性을 가지고 있다.

第2次大戰 直後부터 1953年頃까지는 美蘇만이 國際政治를 左右하는 原動力이었고 이 兩大國을 中心으로 하여 冷戰이 發展하였으며 이른바 冷戰的 兩極體制가 形成되었다.

이러한 冷戰的 兩極體제의 國際政治構造下에서의 韓半島는 6.25 事變이라는 엄청난 民族的 悲劇을 經驗하였으며 世界政策的 見地에서 볼때 南韓은 美國의 對共防衛基地 役割을 担当하였고 北韓은 蘇聯의 極東膨脹政策의 橋頭堡 役割을 担当하였다.

말하자면 韓半島는 美蘇의 冷戰的對決의 熱戰化 場所가 된것이다 美蘇間의 冷戰開始의 公式聲明은 1947年3月 트루만 독트린의 發表였다.

즉 트루만 大統領은 共產勢力의 進出로 威脅을 받고 있던 그리스 및 터어키를 援助하고 共產主義의 侵略에 對抗하여 自由諸國에 軍事援助를 提供할것을 約束하였다.

또한 1947年6월에 마아살 플랜이 發表되어 西歐諸國에 對한 美國의 經濟援助가 大的으로 實施되었다. 나아가서 美國은 對蘇 封鎖政策을 展開하여 9월에 美洲 21個國에 依한 全美相互 援助 條約이 調印되고 1948年3월에 西歐聯合이 結成되었으며 이를 基礎로 하여 49年4월에 美國을 盟主로 하는 北大西洋 條約機構가 成立하였다.

한편 美國의 아시아 政策構想은 日本의 非軍事化와 中國의 民主化를 目標로 하였으나 中國內戰의 本格化에 依하여 破綻하였고 1949年 10月 中共政權의 成立으로 崩壞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後 50年 1月 美國은 아시아 防衛線이 알류슈 — 日本 — 요기나와 — 필리핀을 잇는 線이라 宣稱하고 中國에의 不干涉 政策을 取하였다.

그러나 韓國戰爭을 契機로 美國의 아시아 政策은 一大 轉換하여 臺灣防衛를 引受하고 對日講和條約의 締結을 서둘러 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美·比相互防衛條約, 美日安保條約, ANZUS 條約을 締結하고 對蘇封鎖政策을 中共에도 適用하였다.

다른 한편 韓國戰爭은 歐洲의 情勢에도 큰 影響을 미쳤다.

即 1950年 12月의 NATO 理事會에서 西獨軍 創設이 決定되었고 西歐 6個國에 의한 유럽 防衛 共同體 條約이 調印되었으며 유럽 軍의 테두리 內에 있어 西獨의 再軍備를 認定하게 되었다.

이와 反面에 蘇聯은 美國의 마아샬·플랜에 對抗하기 위해 1947年 7月에 물르토프·플랜을 發表하였고 1949年 1月에 蘇聯과 東歐 諸國으로 構成되는 COMECON 를 設置하였다.

또한 1947年 9月에 歐洲諸國 共產黨間의 連繫強化를 目的으로 하여 코민포름이 結成되었으며 NATO에 對抗하는 軍事措置로서 소위 바르샤바 同盟體制를 구축하였다.

이리하여 이데오르기의 對立을 本質로 하는 美蘇間의 冷戰的 關係는 本格化한것이고 韓半島도 이러한 世界的 環境을 벗어날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2年の 쿠바危機를 分水嶺으로 하여 美蘇의 冷戰体制은 종언을 告하고 同時에 美蘇平和共存体制가 抬頭하였으며 權力構造面에서 多極構造의 現象을 露呈하기 始作했다.

1963年 6月 美蘇直通通信協定, 8月 美英蘇의 部分核禁條約 調印等을 通하여 美·蘇平和共存体制는 本格的으로 發展되기 始作하였다.

이러한 美蘇共存關係의 發展에 副應하여 유럽에서도 1966年 12月에 成立한 西獨의 키싱거 — 브란트 聯立政權이 東西유럽의 和解를 推進하기 始作하여 既存의 先獨逸統一, 後 유럽 緊張緩和의 政策立場에서 先유럽緊張緩和, 後獨逸統一의 政策으로 轉換하였고 仏蘭西의 드골大統領도 NATO의 軍事機構로 부터 脫退하여 蘇聯首腦와의 交流를 始作하고 對東歐의 接近을 積極化하였다.

이러한 東西間의 解氷무드는 1960年 後半期에 들어와서는 國際政治構造적으로 制度化되기 始作하였다.

1968年 7月에 美蘇間에 各己의 勢力範圍를 默示裡에 諒解하여 干涉하지 않고 世界支配를 더욱 確實히 하기 爲한 核擴散防止條約이 調印되어 美蘇共存關係가 急激히 發展되었는데 이러한 國際的與件속에서 1969年 4月 西獨에서는 브란트 社民黨政府가 들어서게 되자 東西關係는 획기적인 進展을 보게되었다.

即 西獨 브란트 社民黨政府는 소위 東方政策을 提唱하여 유럽의 緊張緩和를 爲한 決定的 役割을 遂行하였다.

브란트 西獨首相은 유럽의 現國境線 認定, 東獨存在의 認定을 土臺로 한 現實主義에 立脚하여 1970年 8月 12日 獨蘇不可侵條約을 締結하여 西獨蘇聯關係의 正常化를 이룩하였고 이어 同年 12月 7日

西独·포렌드不可侵條約을 締結하여 포렌드와의 關係改善을 成就하였는바 이러한 措置는 歐洲緊張緩和를 爲한 決定的 措置인 것이다.

繼續하여 1972年 11月 브란트首相은 東西独基本條約을 締結함으로써 戰後東西對立의 核心的인 問題이던 獨逸問題를 잠정적이라는 條件이 붙어 있지만 一段 解決를 본셈이다.

이로서 유럽에서는 平和共存의 制度化가 其實 完成되었다고 볼수 있겠다.

1969年 1月 美國에서 닉슨政府가 들어섬에 따라 美蘇平和共存關係는 보다 깊이 成熟發展되어 이른바 美蘇戰略武器制限會談(SALT)이 開始되어 緊張緩和와 世界平和를 爲한 努力이 傾注되고 있다.

이러한 東西間의 平和共存의 解氷무드는 아시아에도 밀어 닥치기 始作하였다. 70年代에 들어와서 本格화된 美國의 이니셔티브에 依한 美中共關係正常化는 아시아의 冷戰的國際政治構造를 解体시키는 데 있어서 決定的 役割을 担当하였다.

1972年 2月 28日 美中共 共同聲明을 通하여 美中共兩國은 “아시아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主導權을 追求해서는 안되며 또 兩國은 각각 그러한 主導權을 拮立하려는 다른 어떤 國家 또는 國家集團의 노력에도 反對한다」고 하고 또 「어느 強大國이 다른 強大國과 공모하여 그들 兩國에게 對敵하거나 또는 強大國들이 세계를 수개의 勢力圈으로 나누는 것은 세계 人民의 利益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갖는다」고 合意하여 아시아의 緊張緩和에 대해 意見一致를 보았다.

또한 美中共兩國은 美中共關係에 있어서도 비록 「兩國의 社會制

도와 對外政策에 本質的인 相違가 存在한다」는 것을 認定은 했지만 그러나 平和 5原則

- ①美·中共關係의 正常化는 全世界의 利益
- ②國際的 武力紛争의 回避
- ③아시아太平洋地에서의 1國支配의 回避
- ④第3國問題에 對해 第3者를 代身한 協商否定
- ⑤大國間의 勢力分割 競争回避 — 이 兩國關係를 規制한다고 合意함으로써 過去의 敵對關係를 清算하였다.

勿論 이러한 政策轉換의 背景에는 美·中共兩國의 戰略戰術이 內在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이 對中共政策의 근본적 전환을 단행하게 된 동기로 ①國力의 許用한도를 초월한 對外介入을 축소하고

②平和共存을 포방하면서 武力을 증강하여 美國의 勢力權을 도처에서 위협하는 蘇聯을 견제하고

③美國의 支援下에서 성장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美國과의 經濟關係에 있어서 미협조적이라고 지목되는 나라를 側面的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한편 中共이 장구한 고립정착을 포기하고 對美接近을 試圖하게 된 理由로서는 美國이 아시아에서 철수하면 日本의 軍國主義가 부활하고 膨脹政策이 再生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및 日本과의 對備關係에서 더욱 현저해진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先進諸國과의 交流增進의 必要性, 最近에 날로 惡化되고 있는 對蘇關係에 對한 考慮 — 特히 美蘇 및 蘇日의 對中共聯合을 미연에 防止

하기 위한 — 等を 들수 있을것이다.

이리하여 아시아國際政治 秩序는 美·蘇平和共存体制와 美中共平和共存体制라는 두개의 기둥을 土臺로 하여 소위 緊張緩和에의 方向으로 進展해나갈 것이며 이는 또한 美 日 中共, 蘇聯等 4大強國의 相互關係에 依存하게 될것이다.

1972年2月28日 美中共 共同聲明에서 美國이 「韓國과의 緊密한 유대關係를 유지하고 韓國을 支援하여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對話增進을 모색하려는 韓國政府의 諸努力을 支持할것」이라 말하고 中共이 「北韓이 提議한 8個項統一方案을 支持하며 언커크解體를 讚成한다」하여 相互間의 方法論上의 差異點을 露呈시켰지만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戰爭再發抑制에 對해서는 完全 見解一致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美中共關係 正常化는 韓半島 情勢에 決定的 影響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美蘇平和共存關係, 美中共平和共存關係는 韓國問題의 解決을 促進시키고 緊張緩和를 爲한 南北對話의 開始를 不可避하게 한것이다.

더우기 地政學的 位置로 보아 東北亞의 要衝인 韓半島는 美蘇日, 中共 等 4大強國의 利害가 깊이 聯關되어 있는지라 亞細亞, 太平洋地域의 緊張緩和와 平和는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大前提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南北對話의 必然性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70年代 문턱에 들어오면서 開始된 歴史的인 南北赤十字
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은 모두 緊張緩和라는 國際情勢 變化속
에서 取하여진 必然的인 歴史的 措置이라 하겠다.

3.南北關係發展展望

가.南北韓의 立場差異

1972年 7月4日附 南北共同聲明의 合意事項의 推進을 위요하여 南北韓은 熾熱한 意見對立을 露呈시키고 있다.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 第2次會議의 結果를 보면 韓國側이 調節委員會 機能 가운데 “다”項 - 北과 南사이의 經濟文化的 및 社會的交流와 힘을 합쳐 같이 事業하는 等의 問題를 協議決定하며 그의 實現을 保障한다. - 을 強調하면서 經濟 文化分科委員會의 構成을 提議한데 對하여 北韓側은 調節委員會 機能中 “라”항 - 北과 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고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며 그의 實行을 保障한다. - 을 강조하고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等 5個分科委員會의 同時構成을 제의 해왔다.

이와같은 南北韓의 意見差異속에는 엄청나게 相異한 南北韓의 立場이 內在되어 있다.

南北韓의 基本立場을 比較해보면 다음과 같다.

即 韓國은 南北問題의 解決을 爲한 “아포로지”로서 漸進的 段階的 接近方法을 採択하고 있는데 比하여 北韓은 一括的 解決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이러한 接近方法上의 差異를 미루어 생각해볼때 調節委員會 第2次會議에서 南韓이 非政治分野交流를 通해 南北間에 相互 信賴분

위기를 助成한 然後에 政治 軍事問題를 解決하자고 主張하고 北韓이 政治 軍事問題를 優先 해결하자고 主張하여 意見對立을 惹起시킨것은 不可避한 것이라 하겠다.

南北間의 異質的인 社会体制, 生活樣式 및 觀念形態 等の 南北關係의 本質的側面을 考慮해보면 北韓의 立場에 대해서는 理解하기 힘들다.

더우기 北韓共產主義者들의 革命理論과 戰略을 分析하여 上記의 北韓主張과 連結시켜보면 相當히 우려되는 문제점이 提起되고 南北對話에 臨하는 北韓의 姿勢가 二重的임을 알수 있고 基本的으로 戰略 戰術的인 것임을 알수 있다.

이렇게면 北韓의 南北對話에 臨하는 戰略은 窮極的으로 韓半島赤化를 指向하는 一種의 迂回戰略에 不過하다. 하겠다.

따라서 現時點에 있어서의 北韓主張 - 南北韓軍縮 및 同等한 立場에서의 平和條約 締結을 對話의 先行 條件으로 提示, 이 條件履行을 前提한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分科委의 同時構成 - 의 底意에 對해서는 國內外狀況과 聯關시켜 보아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次元에서 解析해 볼수 있다.

第1 見解 :

北韓은 第5期 2次 最高人民會議(73年 4月5日 - 10日)에서 南北對話의 利害得失을 綜合 評價한 結果 外交的 側面에서 다소 利得을 보았지만 對南戰略面에서는 오히려 南韓의 體制를 強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였고 이와 同時에 北韓社会 内部에 不安要因을 배태 시켰음으로 南北交流를 進前시킬수 없다라는 結

論에 到達한것으로 展望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判斷의 根拠를 살펴보면

① 外交的側面

○北韓은 南北對話를 利用하여 外交攻勢를 強化하였고 國際地位가 向上되었음.

(예) 늘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의 北歐羅巴 諸國의 北韓承認

② 北韓內部側面

○金日成의 新年辭를 볼것 같으면 北韓內 黨僚派, 軍部派 및 年老革命派間에 南北對話에 對한 期待 및 評價에 있어서 差異가 露呈되었음.

○北韓의 對南비난放送 再開를 미루어 보아 緊張, 革命力說等 現狀打破의 立場을 體制存立基盤으로 삼았던 北韓이 現狀維持政策을 長期的으로 推進하기가 困難한것으로 思料됨.

○軍事面에서 美國이 對南 密着防衛政策을 堅持하면서 對韓軍援을 계속하고 있는데 比해 北韓은 中蘇의 援助不進으로 因한 南北軍事力 不均衡에 對한 不安에 依해 軍縮 및 平和協定체결을 主張하는 것으로 思料됨.

③ 對南戰略面

○南韓社會 體制에 對한 非難을 強化함을 볼때 十月維新을 그들의 對南戰略 遂行의 가장 큰 障壁으로 看做하고 이의 弱化를 要求하고 있음.

○韓國의 段階的 交流戰術로 그들의 聯邦制 統一의 基礎가

될 合作推進이 困難할것으로 判斷

第 2 見解 :

北韓이 交流를 反對하고 南北對話를 故意로 遲延시키고 있는 理由는 UN問題와 깊이 聯關되어 있는 것으로 推理 判斷한다. 即 北韓은 南北對話의 不進展를 口實로 韓國側이 내놓은 UN 韓國問題討議 延期案의 不當性を 暴露하고 더 나아가 UN에 北韓代表派遣을 實現시켜 南北韓國國際地位의 同格化무드를 造成하고 同時에 駐韓美軍撤収와 언커크解體를 企圖하여 韓國과 UN과의 關係를 斷切시키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今年 UN 總會가 끝나면 UN 戰略의 成敗에 關係없이 南北對話를 다시 進展시켜 交流 合作을 통한 人民革命戰略 路線으로 復歸할것으로 본다.

이러한 主張의 論拠로서는 北韓이 그들체제의 性格上 北韓 社會에 對한 南北交流의 惡影響을 充分히 除去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南北對話의 進前이 北韓의 國際地位向上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以上の 두가지 見解를 綜合評價해 볼때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수 있겠다.

即 南北對話는 드디어 初步的 接觸과 對話의 窓口를 여는 所謂 第 1 段階課業을 終了하고 第 2 段階로 접어드는 過渡期

狀況에 突入하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立場으로서는 앞으로 그들의 統一戰線原理上 韓國執權層을 相對로 하는 上部統一戰線構築 可能性에 失望하고 全体 韓國의 人民을 相對로 하는 下部統一戰線構築을 위한 對內外的心理的強化에 注力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協商理論上으로 볼때 南北對話는 南北 共히 3重選擇狀況에 直面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相對方이 妥結하리라고 期待하는 條件에서 合意를 받아 들이는 方法을 揀하느냐 或은 合意없이 協商을 中斷시키고 協商再開의 意思를 表示치 않을 方法을 揀하느냐 或은 追後의 交涉을 通해 有用한 條件을改善하려고 努力하는 方法을 揀하느냐 하는 것이다.

나. 南北立場差異의 妥結方式診斷

(1) 第1段階 : 戰術的 對峙段階

南北調節委員會의 各分科委員會構成問題에 對한 南北韓間意見差異를 打開하기 爲하여서는 段階的接近이 要望되며 自然이 與같은 段階的接近이 現實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第1段階는 南北韓間戰術的對峙段階로서 南北韓은 相互間에 自己立場을 貫徹하기 爲하여 議題妥結의 進前을 갖어 오지 않고, 警告와 脅迫을 交換할 것이다.

그리고 이 戰術的對峙狀態下에서는 앞으로 具體的協商進前을 予想하고 그때에 有利한 協商을 展開할 수 있도록 與件造作을 爲하여 必要한 諸般努力을 強求할 것이다. 그 좋은 例로서 最近北韓이 展開하고 있는 여러 가지 活動을 예의 注示할 必要가 있다.

北韓은 南北調節委를 繼續維持하면서 同時에 休戰線上에서 小規模軍事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武裝間諜을 繼續 南派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挑發活動을 展開시키고 있기 때문에 對南戰略에 混線을 이르킨듯 하나 이것은 앞으로 實際協商段階에 있어서 軍事問題를 浮刻시킴으로서 南北韓軍縮의 實現과 駐韓유엔軍의 撤収 및 南北韓 韓平和協定締結을 貫徹시키기 爲한 戰術에 不遜한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境遇도 이 戰術的對峙段階에서 우리側에 有利한 協商條件을 造成하기 위한 努力을 하여야 할것이다. 먼저 우리의 段階的 統一接近 다시 말하면 社會文化的交流과 經濟的交流를 먼저 實施하고 最終的으로 軍事政治問題를 解決한다는 基本原則을 貫徹시키기 爲하여 北韓의 軍事挑發이 緊張을 갖어올뿐이며 北韓의 저의가 武力赤化統一에 있기때문에 軍事問題의 解決을 現時點에서는 이룩할수 없다는 弘報活動을 대대적으로 展開하여야 할것이다.

다음 第2段階는 非公開交渉段階이다. 第1段階에서 戰術的對峙의 停지작업이 어느程度 達成되면 다음 非公開交渉課程을 通하여 具體的으로 協商을 進前시킬수 있도록 相對方의 意見을 打診하여야 한다. 現代外交의 塞本的性格은 事實상 秘密交渉課程에서 모든 問題를 打結하고 그 結果를 놓고 形式的으로 公開會談을 開權하여 公式化까지 確認시키는 方法을 모색하고 있다. 南北對話의 交渉課程에서도 基本的으로 이 原則이 適用되어야 한다. 南北韓關係에서는 現在 直通電話와 幹事會議를 運當하고 있는 南北調節委員會의 非公開「채널」을 利用하여 協商打結을 爲한 虛勢와 讓步의 言質을 繼續交換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相對方의 真意를 正確히 把握하여야 한다. 이런 觀點에서 南北調節委員會 各分科委員會를 構成하기 위하여 予想할수 있는 合意誘導狀況은 5個分科委員會를 同時 構成하거나 아니면 經濟;文化,政治,軍事가 아닌 對外活動共同分科委員會를 構成하는 方法이다.

끝으로 第3段階는 具體的妥結段階이다.

이상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南北調節委員會分科委員會構成에 關한 現實的妥結方法은 政治,軍事,外交,經濟 및 文化等 5個分科委員會를 同時 構成하거나 이것이 쉽게 타개되지 않을 경우에 對備한 對外活動共同分科委員會構成方案中에서 摺一하는것이 合理的일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우리側은 段階的接近原則에 따라 社會 및 經濟分科委員會의 優先構成을 主張하여 왔고 北韓側은 5個分科委員會의 同時構成을 主張하여왔다. 北韓側의 底意는 5個分科委員會를 同時構成하여놓고 事實은 軍事政治問題의 優先解決을 企圖할것이다.

그러나 이 5個分科委員會同時構成案은 반듯이 우리側에게 不利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長短점에 關한 明確한 分析이 要望된다. 5個分科委員會同時構成案의 長點은 첫째로 南北對話를 實質化시킬것이다. 우선 北韓側의 主張을 受諾한 結果가 되기 때문에 北韓側은 南北對話를 遲延시킬 名分을 發見하기가 困難할 것이다.

둘째로 가장 重要한 長點은 北韓의 對話主導勢力의 總露出誘導가 可能할것이며 現北韓의 階級社會적實情에서 判斷할때 北韓은 協商을 主導할수 있는 「에리트」數의 不足을 絶實히 느낄것이다. 特히

폐쇄社会의 特殊性에 따라 北韓의 協商主導勢力은 思考方式의 경직에 따라 有能한 協商「에리트」가 極히 制限될것으로 判斷된다.

이에 反하여 우리側은 多方面的「에리트」의 總和的動員活用契機가 될것이다. 自由社会의 特殊性에 따른 歐美社会의 教育을 통한 多方面的의 知識은 協商課程에 있어서 劃記的「아이디어」를 開發하게 될것임은 거의 疑心の 余地가 없다. 한편 5個分科委員會同時構成案의 短点도 상당히 있음을 注目하여야 한다. 첫째로 우리側은 多方面的인 協商「에리트」의 資源을 保有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아직 協商經驗이 日淺하기 때문에 이 有能한 資源을 組織化시키지 못하고 있는 実情이다. 다시 말하면 各分野別協商「에리트」의 組織的訓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訓練이 時急하다.

둘째로 이와 아울러 分野別 交流推進에 따른 準備가 不充分함을 指摘하지 않을수 없다. 셋째로 協商統制本部構成이 未備된 狀態에 있다. 그러나 이 5個分科委員會同時構成案이 妥結되지 못할 경우 「對外活動共同分科委員會」를 構成할수 있다.

이案은 먼저 南北韓의 現實的立場의 調化가 可能하다는 長点이 있다. 우리側의 立場에서 보면 外交的優位維持속에서 對外的으로 非政治的分野의 交流實現이 可能하며 北韓側立場에서 보면 對外活動 共同步調를 통하여 南北韓同格化的 目標를 達成하면서 同時에 對南 革命的立場인 聯邦制를 推進시킬수 있는 國際的基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의 長点은 南北對話의 成果를 國際적으로 誇示하는 結果가 되어 南北對話의 進展에 따른 國民의 挫折感解消가

可能하다는 点이다.

세째로 重要な 長点是 韓國事態의 平和的 進展과 더불어 國際的 支持獲得이 可能하며 이에 따라 韓半島事態에 對한 各國의 外交的 立場의 調整이 可能하며 이를 土臺로 各령 對「유엔」政策等도 調整할 수 있게 될것이다. 다음이 對外活動共同分科委員會構成案의 短点是 結局 南北韓의 外交的地位同格化事態가 露程된다는 点이다. 最近 南北對話의 推進이 北韓承認國의 增加現狀을 招來하였으며 특히 「유엔」 傘下 國際機構의 加入을 實現시켰음을 考慮할때 對外活動共同分科委員會의 構成이 國際적으로 南北韓의 外交的地位同格化를 갖어올것임은 當然之事實일것이다.

둘째로 外交的地位同格化의 當然한 歸結로서 北韓의 이른바 「國際革命力量」의 強化를 招來하여 聯邦制의 對外基盤造成이 加速化될 것임은 앞서 指摘한 바와 같다.

以上과 같이 分析할 때 結論적으로 앞서 例示한 5個分科同時構成案이나 對外活動共同分科委員會構成案은 各者 長短점이 있으나 우리의 立場에서 볼 때 推進possible한 案으로 判斷된다. 따라 5個分科委員會同時構成案과 對外活動共同步調委員會構成案을 推進시키는데 對備하여 協商對策研究가 現時點에서 緊急이 要望되며 특히 對外活動共同步調分科委員會는 北韓側이 現在 對外活動을 強化하고 있기 때문에 協商을 通하여 이를 抑制하기 爲한 現實的問題狀況이 尚存하고 있음을 注目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南北韓의 雙方友邦들

은 各者 그들의 韓半島에 對한 政策調整을 為해 南北韓 스스로
가 一定한 協商基準提示를 期待하고 있는 實情이다.

以上の 展望에서 對外活動共同分科委構成을 對備한 協商對策講求
에 本方 案 研究의 目的이 있다.

4. 對外活動共同步調에 對한 南北韓立場 比較

가. 南北間의 對外共同步調觀念比較

南北調節委員會 機能 가운데 *마* 項—對外活動에서 北과 南이 共同步調를 取하며 單一民族으로서 民族的 궁치를 表明하는 問題를 協議 公布하며 그 實行을 保障한다에 —에 對한 南北韓의 立場과 觀念은 相當한 相異性을 內在하고 있다.

韓國은 民族史的 立場과 論理에서 出發하여 韓半島上의 單一國家觀을 主張하며 두개의 韓國觀을 排除한다.

解放初期에 國際輿論과 모스크 3相協定이 韓國에 對한 信託統治를 提議했을때 韓國人 大多數가 同提案을 反對하여 民族的 託治反對運動을 일으켜 民族의 獨立과 主權을 主張하였는데 이러한 民族運動도 民族史的 動機에서 出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해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당시 世界共產革命을 목표로 한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에 盲目化되어 民族的利益과 主權을 外面, 모스크 協定을 준수하여 贊託을 主張한 것이다.

따라서 解放初期에 있어서는 南北韓의 對外的 共同步調란 念頭에 들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反民族的行爲로 因해 民族分裂問題가 深刻히 提起된 것이다.

南北韓의 對外的共同步調觀念이 抬頭된 것은 國際情勢變化와 緊密한 聯關性을 가지고 있다.

所謂 소련의 후로시초프政府가 登場한 以來 美蘇間에 平和共存

問題가 提起되고 巴야흐로 美蘇冷戰體制가 흔들리기 始作함에 따라 國際社會에서는 나쇼날리즘이 抬頭하기 始作하였다.

이와 같은 나쇼날리즘의 거센 登場으로 北韓도 그들의 對蘇依存 一辺倒立場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民族的思潮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北韓最高人民會議 才 2期 才 8次 會議 崔鏞健報告書(1960年 11月 19日)에나 最高人民會議 才 3期 才 1次會議 金日成 演說(1962年 11月 23日)에서 나타났듯이 北韓은 60年代에 들어와 韓半島 赤化統一을 目的으로 하는 所謂 聯邦制 統一案을 提示하면서 附隨的인 提議로서 南北韓의 對外的 共同利益追求와 祖國의 國際地位 提高를 이야기 했다.

이러한 北韓의 立場은 解放初期에 있어서 보여준 託治主張의 反民族的立場과는 差異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勿論 北韓이 主張하는 內容의 根本意圖에 있어서는 何等의 質的變化도 없고 韓半島 赤化의 方便으로서 同提案을 提示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言語表現上으로는 相當한 發展的態度를 取한 것이라 하겠다.

이리하여 對外的活動面에서 南北韓의 共同步調觀念이 잉태되기 始作되어 1972年 南北共同聲明에서 明文化된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아직도 內容面에 있어서는 南北韓이 엄격한 相異한 態度를 가지고 있음은 不問可知의 일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韓國은 外勢의 民族的 國益侵害에 對한 抗拒라는 民族史

的 立場과 態度를 가지고 있는데 反해 北韓은 民族이란 한갓 鬭
爭을 위한 手段概念에 不過하다라는 共產主義 革命哲學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韓國主張과 北韓主張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明確히
認識하여 北韓의 革命戰略을 冷徹히 除去시켜야 한다 .

이러한 前提下에서 民族共同利益 追求라는 對外的 共同步調가 南
北間에 이루어 지도록 努力해야 한다 .

眞正한 意味를 가진 南北間의 對外的 共同活動이 이루어진다면
對日關係上의 獨島歸屬問題와 對中共關係의 間島歸屬問題 또는 白頭
山 所有權問題等에 있어서 絶對的인 優勢立場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나 . 南北의 戰略的意圖 比較

言語表現上으로는 7 . 4 南北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에서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南北韓은 對外
的共同步調에 見解一致를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戰略 戰術的 次元에서 볼때는 南北韓의 目標과 立場은
전연 相反되고 있다 . 이와 같은 相反된 南北韓의 立場背景으로는
南北間의 体制의 異質性 , 生活樣式의 相異性 , 思考方式의 差異가 根
本的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

韓國은 國際地位의 優位性을 계속 維持하고 北韓自由化를 爲한
段階的 對北接近戰略의 實現을 爲한 對外的 與件助成을 爲해 南北

間의 對外的 共同步調를 提議하고 있는 것이다.

南北間의 對外的 共同步調를 取할 경우 韓國은 國際情勢에서 提起되는 두개의 韓國壓力을 回避하여 하나의 韓國이미지를 계속 심을 수 있으며 동시에 결과적으로 唯一合法性이라는 韓國의 單一代表權의 既得權을 계속 保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相對적으로 國際地位向上을 通한 南北韓의 地位同格化를 노리는 北韓의 外交目標을 挫折시킬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對UN關係에 있어서도 南北韓의 同時UN加入이란 國際的 壓力에 대한 抵抗에 있어서도 有利한 立場에 서게 되고 韓國統一의 正當性을 널리 說得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南北韓의 對外的協力は 緊張緩和라는 國際潮流에 呼應하는 結果가 되어 好意的인 國際的反應을 받게 될 것이고 韓國民族의 優越性을 國際적으로 誇示하게 되는 것이다.

對北政策面에서는 美中共關係의 平壤外交라든가 日中共關係의 段階的 接近이라든가 東西獨關係의 段階的 發展에서 보여주는 國際社會의 發展趨勢에 따라 韓國의 段階的 機能的 對北接近論의 妥當性이 보다 誇示되어 질수 있고 一括的 解決을 주장하는 北韓의 政治 軍事問題優先解決方法이 오히려 糾彈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南北間의 對外活動面에서의 非政治的交流 實驗에 對해 北韓은 더 이상 反對할수 없게 된다. 選良한 國際與論이 北韓의 非合理的 主張을 그냥 놓아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反해 對外活動面에서의 北韓의 戰略 戰術的 立場은 上記와는

全然 다르다.

北韓은 南北間의 對外的 共同步調를 取함으로서 北韓의 國際地位와 이를 통한 南北同格化를 기도하며 韓半島의 赤化를 목표로 하는 聯邦制 實施의 國際的 條件造成을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南北間의 對外共同活動問題에 대해서도 北韓은 政治軍事的 接近方法을 適用시키고 있다 하겠다.

이를테면 韓美關係, 韓日關係의 弱化를 爲해 南北韓이 對外的 共同步調를 取하자 또는 駐韓美軍을 撤収시키고 언커크를 解体시키기 위해 南北韓이 힘을 합치자 하는 式으로 北韓이 主張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은 南北間對外共同步調를 南北間에 多方面的인 合作을 爲한 側面支援戰術로 利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5 . 對外活動共同分野推定

가. 對外活動共同步調可能性

對外活動共同分野에 對하여서는 現在 대체로 二個의 見解가 對立되어 있다. 첫째 才一見解는 南北對話가 南北韓 各各 戰略戰術的立場에서 推進되고 있기 때문에 南北韓間의 對外活動共同分野는 事實上 거의 없다는 見解이다. 對外活動共同步調는 原則上 南北韓이 同時에 有利하다고 判斷되는 分野에서 相互共同步調가 可能하기 때문에 現在 南北間의 戰略對立上 以上の 條件을 滿足시켜주는 對外活動共同分野는 現實적으로 極히 制限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一般的으로 對外活動共同步調의 實現이 가장 容易할 것이라고 判斷하고 있는 이른바 「非政治的的問題」도 本質적으로 그 效果에 미치는 諸般 政治的影響을 考慮할 때 基本的으로 政治的 問題化될 것이기 때문에 俗稱 非政治分野의 對外活動 共同步調도 事實上 困難하다는 結論이 된다. 一例로 南北韓單一올림픽팀을 構成하였다고 가상할 경우 이것은 이른바 非政治的分野일뿐만 아니라 民族的 긍지를 對外的으로 宣揚하는 事業이 될수 있으나 南北韓이 單一올림픽팀을 構成하였다는 것 自体가 南北對話와 對外活動共同步調를 相互實現시키겠다는 意味로 解釋되며 結果적으로 政治的意味를 內包하게 된다.

따라서 南北韓 올림픽單一팀構成이 事實上 至難한 事實임을 알게 된다. 이 이외에도 南北韓單一「팀」을 構成한다고 合意를 보았을

境遇에도 技術的으로 어려운 問題가 수반하며 共同競技場, 練習場選定問題, 等 모든 側面에서 南北韓体制 競爭的要因이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南北韓單一팀 構成이 現實化되기 爲해서는, 事實上 南北韓間의 政治的統合이 어느程度 實現되기 以前에는 不可能하다는 結論이 된다.

以上の 極端的 否定的 見解에 對하여 東西緊張緩和가 加速化되고 分斷國間의 相互接近이 急進展되고 있는 國際情勢의 潮流로 보아 비록 制限된 範圍에서 南北間의 對外活動共同步調가 可能하다고 보는 또 하나의 見解가 있다. 即 南北韓은 國內外政治的 側面에서 國際趨勢에 適應이 不可避하므로 比較的 政治性이 排除된 分野에서 可能한 限 南北和解를 實現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一例를 든다면 國際法上 國家承認과 國際機構加入은 別個의 問題이기 때문에 유엔傘下非政治的機構에는 南北韓의 加入이 可能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現在의 유엔傘下에는 380 餘種의 非政治的專門機構가 있으며 이中 政治性의 濃도에 따라 A級, B級, C級으로 三等級이 있는바 政治性이 거의 排除되고 있는 C級專門機構에의 南北韓加入이 可能하지 않느냐는 主張이다. 그리고 南北韓對外活動 共同步調를 取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는 韓國의 意圖에 關係없이 北韓이 一方的으로 外交的 勢力에 의하여 國際機構에의 加入이 擴大될 境遇, 韓國은 北韓의 國際的 地位 向上을 防止하기 爲하여서도 對外活動共同步調를 模索하여야 한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結論的으로 對外活動共同步調分野는 非政治的分野뿐만 아니라 政治的分野에서도

추구 되어야 한다고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以上の 二個의 對立되는 主張을 現時點에서 客觀적으로 判斷하여 볼때 才一見解가 本質적으로 妥當할 것이나 南北對外活動共同步調를 戰略적으로 추구하는 立場에서 對策研究는 才2見解中立으로 展開할 必要가 있다. 이와 같은 立場에서 予想할수 있는 諸般의 對外活動共同步調分野는 다음과 같다.

나. 對外活動共同步調分野

對外活動共同步調分野는 (1) 社會文化分野 (2) 經濟分野 (3) 政治, 軍事分野로 大別되며 各分野는 또한 (㉠) 共同事業面 (㉡) 國際機構面 (㉢) 在外公館面으로 分類할 수 있다. 各分野의 具體的 內容은 다음의 表와 같다.

(1) 社會文化分野			
區分	分 野	內 容	備 考
共同事業面	(가) 文化藝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古典共同發表會 ○ 共同映面製作 (古典文化共同紹介) ○ 共同文化센터建立 (海外弘報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團結誇示 ○ 民族共同利益追求 및 窮極的統一指向에 寄與
	(나) 體 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競技共同出戰 및 共同応援團構成 	

区分	分野	内 容	備 考
	(다) 交通・通信 (라) 学 術 (마) 觀 光 (바) 言論出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一올림픽팀構成 ○ 非武装地帶内 國際水準級 共同競技場建立 ○ 個人技, 記錄技共同樹立 ○ 國際航空의 南北連結 (東京.- 모스크바航空路) ○ 海外民族文化共同研究 (다가마 쓰쓰카古墳研究) ○ 海外共同觀光團構成 및 팜플렛發刊 ○ 韓國古典共同出版 및 海外展示 	
國際 機 構 面		(가) 同時加入機構에서 南北韓 相互協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올림픽委員會 南北混成單一팀構成 ○ 國際科學聯盟理事會 (나) 同時加入機構에서 南北混成單一加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世界仏教徒會 	

区分	分野	内 容	備 考
		<p>(다) 单独加入 機構에서 誹謗活動 中止 및 共同利益擁護立場堅持</p> <p>○ 두 개의 韓國을 結果할 國際 機構에 對한 加入試圖拋棄, 但 읍서버派遣讓解</p>	
<p>在 外 公 館 面</p>		<p>(가) 南北相互協力</p> <p>○ 韓國人(演芸, 体育人等)의 蘇聯訪問時, 北韓駐蘇大使館의 協調要請</p> <p>(나) 相互敵對活動中止</p> <p>(다) 海外弘報活動上的 相互誹謗中 止</p> <p>○ 相互誹謗禁止條項(南北調節委 合意事項)의 國外擴大</p> <p>○ 體制宣傳을 目的으로 한 弘 報活動 相互中止</p> <p>○ 民族文化, 弘報活動強化</p> <p>○ 共同弘報센터 運營</p>	

(2) 經濟分野

区 分	内 容	備 考
共 同 事 業 面	(가) 金剛山共同觀光開發 (나) 海外共同商品 展示場 開設 ○ 共產圈 交換展示幹旋및 實施 ○ 自由圈 (다) 仲介貿易 (라) 共同漁勞및 魚市場開設 (마) 自由貿易市場開設	○ 民族團結 誇示 ○ 民族共同 利益追求 및 窮極的 統一指向 에 寄与
国 際 機 構 面	(가) 同時加入機構에서 南北相互敵 對活動中止및 相互協力 ○ 아시아, 아프리카 經濟協力 機構 (나) 单独加入機構에서 敵對誹謗活 動中止	
在 外 公 館 活 動 面	(가) 南北相互協力 ○ 韓國의 對東歐圈 貿易開始 境遇 東歐駐屯 北韓公館의 行政的 協力要請 ○ 南韓이 東歐에서 商品展示會 開催境遇 : 北韓 公館協力要請	

(3) 政治, 軍事分野

区 分	内 容	備 考
共 同 事 業 面	<p>(가) 南北相互協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日間 独島領土權 紛争境 遇 共同對処 ○ 韓・中・共同国境線 紛争境遇 共同對処 ○ 大陸棚管区処理에 對해 共 同協力 	
国 際 機 構 面	<p>(가) 유엔機構에서 才 3 国을 通 한 相互誹謗中止</p> <p>(나) 同時加入機構에서 相互敵對 活動中止 및 相互協力 模索</p>	
在 外 公 館 活 動 面	<p>(가) 在外既存公館現狀凍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相對方의 既存公館設置国에 는 反對便은 代表部 또는 領事館 設置許容 但, 大使館 設置 反對 	

6. 对北協商戰略

가. 基本立場

南北間에 豫想되는 對外活動共同步調分野에서 南北韓對外活動共同步調를 推進함에 있어서 우리側이 主張하고 實踐하여야할 基本立場은 무엇보다도 먼저 對外活動共同步調를 段階的으로 實踐하여야 한다는 基本原則이나 勿論 앞으로 指摘하겠지만 南北韓間의 二重公館制를 廢止시키자는 主張等 軍事政治分野의 主張도 경우에 따라서는 主張할수도 있지만 對外活動分野에 있어서 社会文化的側面으로 부터 經濟的側面 그리고 政治軍事的側面으로 段階的으로 擴大시킨다는 基本立場을 우리側은 貫徹시켜야 한다. 對外活動分野는 国内政治와 南北關係의 連長이기 때문에 南北對話의 進前과 步調를 같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南北對話面에서 우리가 漸進的接近原則을 貫徹하였다 하여도 對外活動面에서 漸進的接近原則을 破壞해 버리면 이것이 곧 南北對話面에 影響이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韓對外活動分野面에서 社会, 文化, 經濟, 政治軍事順으로 漸進的 段階的 接近 擴大를 기함은 勿論, 該当分野의 共同步調方法面에서도 可能하던 共同步調內容의 容易度에 따라 共同事業面, 國際機構面 그리고 在外公館面으로 段階的으로 擴大하여야 한다. 現在南北韓의 主張으로 보아 經濟的側面에서의 共同事業이 比較的順調르울 것이며 다음으로 共同步調 그리고 最終的으로 政治外交分野인 在外公館面에서의 共同步調가 가장 어려운 分野일 것이다. 在外公館面의 共同步調의 具體的內容에 對하여서는 앞으로 言及하겠다.

다음 對外活動共同步調上에서 對北協商戰略에서 우리側 基本原則으로 考慮할 수 있는 事項은 國際機構上의 共同步調順位에 關한 問題이다. 먼저 國際機構上의 共同步調는 南北韓이 國際機構內에서 相互 誹謗活動을 中止하고 國際機構上의 事業遂行에 있어서 相互協調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리고 境遇에 따라서는 南北韓이 同時에 加入한 國際機構上의 代表權을 單一化시키는 問題, 相對方이 먼저 加入한 國際機構에 加入을 申請하지 않는 問題等 多様な 角度에서 問題가 提起될 수 있으나 事實上 이와같은 問題는 南北對話가 本格的으로 進前을 본 後의 問題가 될것이다. 여하튼 이와같은 等屬의 國際機構上의 共同步調는 먼저 南北韓同時加入機構에서 비롯하여 漸進적으로 单独加入機構로 擴大되는 基本原則밑에서 進行되어야 하며 또 同時加入機構나 单独加入機構에서도 우선 民間機構에서 다음 政府機構로 옮겨지는 것이 現實的이며 容易한 方法이 될것이다.

다음 南北韓 對外活動 共同步調上의 基本原則으로서 南北韓이 既往에 主權的決定으로서 措置를 取한 對外關係事項은 協商對象에서 排除시켜야 한다. 그 代表的例가 南北韓雙方이 이미 締結한 諸般 條約關係이다. 우리側은 韓美相互防衛條約을 비롯하여 各種內容의 條約을 締結하고 있는바 兩者條約 300 餘件, 多者條約 100 餘件을 이미 各國과 締結하였으며 北韓의 境遇에도 朝中, 朝蘇相互援助條約을 비롯하여 數百件的 條約을 締結하였다. 이中에서 特히 韓美相互防衛條約과 朝中, 朝蘇相互援助條約등 軍事關係條約은 마치 國內體制과 秩序의 不干涉原則과 마찬가지로 國家存立에 重要的 聯關을 가진 事項임으로 協商對象에서 完全히 排除되어야 한다. 다만 長

期的觀點에서 南北會談이 進前을 보아 南北韓間 平和協定の 締結등 基本條件이 變化된 境遇 南北韓間에 相互合議가 成立된 時期에는 別個의 問題일 것이다. 다만 이 時点에서도 現 東西獨基本條約이 軍事問題를 排除하고 있음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끝으로 南北韓 對外活動 共同步調上의 基本原則은 協商對象의 性格과 分野를 明白히 設定하는 것이다. 即 協商이 具體化되기 以前에 協商可能分野를 미리 確定시켜야 하며 이 原則에서 벗어나는 事項은 排除시켜야 한다. 따라서 協商對象分野는 첫째로 對內外的 合理性에 基礎한 相互利益分野이며 둘째로 民族的 公지의 宣揚對象分野이어야 하며 끝으로 韓半島代表性의 單一性을 對內外的으로 破壞시키지 않는 事項이어야 한다.

나. 北韓의 豫想提案事項

앞에서 北韓의 南北韓對外活動共同步調에 臨하는 戰略事項을 具體적으로 分析한바 있지만 이 角度에서 國際協商展開過程에 있어서 北韓側이 提議할 것으로 豫想되는 對外活動共同步調分野를 明白히 推定할 必要가 있다. 北韓은 첫째로 政治, 軍事分野 優先實施原則에 立脚하여 駐韓美軍의 撤収와 「언커크」解體를 主張할 것으로 豫想된다. 駐韓美軍撤収와 「언커크」解體는 南北韓相互 10 万名線으로 減軍實現 및 平和協定締結主張등에 該當하는 對外의 事項으로서 이른바 南北韓聯邦制를 實施하기 爲한 先決問題인 것이다. 北韓側은 이상의 軍事政治分野의 對外活動共同步調를 提議하고 이것을 貫徹하기 爲한 環境造成的 戰術的立場에서 南北韓올림픽 單一팀構成,

國際競技單一팀構成, 南北韓共同漁船團構成 및 單一民族芸術團構成 등 非政治分野의 共同步調를 提議할 것이다. 이상의 狀況은 北韓側이 現在까지 提示하였거나 이미 示唆한 事項으로서 南北韓對外活動共同步調問題가 拳論될때 一次的으로 提議될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南北韓對外活動共同步調를 實現시킴에 있어서 北韓의 이와같은 攻勢를 封鎖할 수 있는 適切한 協商對策이 強求되어야 한다.

다. 우리의 主導的提案事項

韓半島代表性的 對外的分裂을 防止하고 單一性的 維持가 統一을 爲한 對外環境造成에 有益하다는 事實을 勘案하여 南北韓은 韓半島에 二個의 主權國家가 存在한다는 事實을 對外的으로 印象지우지 않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議題를 即刻 討議하여야 한다. 卽 二重公館不設置案으로서 「一方이 이미 大使館 등 外交關係를 設定하고 있는 境遇, 他方은 一例로서 貿易代表部만을 設置」하는 形式으로 二重公館을 不設置하는 問題를 討議하여야 한다. 이 案은 韓國의 唯一合法性과 7.4 共同聲明의 精神으로 보아 當然한 主張이며 특히 北韓이 對外活動을 強化하여 國際적으로 南北韓의 同格化를 企圖하고 있는 現時點에서 外交攻勢를 封鎖하는 戰略的價值가 있기 때문에 二重的效果를 가져오는 主導的提案이나 二重公館不設置에 의한 外交的結合이 北韓이 主張하고 있는 南北聯邦制의 對外環境을 造成할 可能性이 있다는 點에서 明白한 損益計算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二重公館不設置案을 對外的 單一代表性을 維持한다는 意味에서 우리의 漸進的接近政策에 違背되는 政治外交的事

項이며, 聯邦制의 國際的與件을 造成한다는 點에서 損害를 가져오나, 韓國의 唯一合法性을 強化하고 國際社會에서 二重公館의 擴大에 따른 北韓의 外交的同格化를 防止하여 聯邦制를 主張할 수 있는 名分을 抹殺시킨다는 點에서 우리側에 有益한 結果를 가져오는 複雜한 要因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主導的으로 提案할 수 있는 事項은 앞에서 指摘한바 있는 國際機構上의 共同步調이다. 첫째로 2個의 韓國을 結果할 國際機構相互不可入을 提議하고 둘째로 单独加入機構에서는 加入側이 韓半島代表性을 保有하고 셋째로 國際機構加入을 爲한 南北韓의 外交競争을 回避하는 問題를 主導的으로 提議할 수 있다. 이상의 國際機構上의 主導的提議에 關한 우리側의 損益評価는 대체로 二重公館不設置時와 類似性이 있으나 다만 그 強度가 弱화될 뿐이다.

以上の 問題를 于先 討議하므로써 韓民族의 統一에 對한 政治的 要求를 對外的으로 分明히 하여야 하며 이 案을 北韓側이 受諾하지 않을 것이나 現時點에서 南北對話의 主導權을 掌握하는데 極히 有利한 提案들이며 北韓이 이들 提案을 拒否할 때 反對로 다음 事項을 北韓側에 要求할 수 있게 된다. 即 以上の 代表性分裂防止協商을 통해 誘導할 수 있는 北韓側 讓步事項은 (1) 海外共同商品展示場開設 (2) 單一民族芸術團海外公演 (3) 「다가 마쓰쓰까」古墳 廣開土大王碑 共同踏査研究等 海外民族文化共同研究 (4) 海外에서 相互誹謗中傷弘報中止 (5) 國際機構에서 相互敵對行動中止 등등이다.

라. 最終合意豫想分野

以上の 南北對外活動共同分野는 앞에서 指摘한 우리의 主導的提案事項을 北韓側이 受諾하지 않을 것을 前提로 南北韓의 協商이 比較的 容易할 것으로 豫想되는 分野이나 南北韓의 協商雰圍氣가 상당히 成熟되지 않고는 이分野도 그 妥結이 事實上 不可能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妥結이 容易하리라고 상상되는 分野도 實際上 政治的意味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協商의 初期段階에서는 南北韓이 最終合意할 수 있는 對外活同共同步調分野는 極히 制限될 것이다. 海外南北韓商品共同展示, 單一民族藝術團海外公演, 海外所在民族文化共同研究 및 南北「올림픽」單一팀構成問題 등이 豫想할 수 있는 分野이다. 이상의 分野는 海外에서 民族文化共同研究의 境遇와 같이 이미 經驗한 分野이거나 아니면 南北韓이 共同으로 提議해온 分野이다.

마. 其他事項

끝으로 對外活動共同步調를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共同事業機構를 設置하여야 하며 設置方法은 여러가지 있을수 있으나 南北調節委員會外交分科委員會傘下에 構成함이 合理的일 것이며 둘째로 對外活動共同事業上的 標識은 韓半島地圖를 包含하는 內容의 圖案이 適切할 것이며 号稱은 「南北對外事業共同委員會」 등으로 使用함이 좋을듯 하다. 특히 北韓은 「共同」이라는 用語代身에 「合作」이라는 用語를 主張하였던 經驗을 注目할 必要가 있으며 國家는 南北韓體育交流問題 討議에서 제기되었던 「로잔느」合意事項을 考慮하여 「아리랑」을 使用함이 좋을듯하다.

7. 結 論

위에서 分析해본 結果 南北韓의 對外共同步調를 實現하는 경우 韓國은 民族史的 見地에서나 統一政策的 見地에서나 或은 戰略 戰術的次元에서도 有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萬一 對外的 共同步調가 取해지는 경우 어떠한 有利點이 우리에 게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期待되는 成果가 무엇인가에 對해 서 檢討하기로 한다.

먼저 우리에 게 有利한 點을 찾아 보면

첫째, 對內面에서 불때 緊張이 緩和될 것인바 이는 南北間의 同族相爭을 回避하고 平和的인 手段에 依한 國土統一을 希求하는 國民들의 支持를 받게될 것이다.

아울러 解放된 以來 20 余年間 閉鎖된 北韓社會에 世界의 움직임과 國際趨勢를 깨닫게 하는 契機를 提供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結果的으로 北韓住民들에게 그동안 北韓當局이 宣傳 했던 世界는 一種의 虛偽나 虛構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露出시킴으로써 北韓의 政治力量을 弱化시키게될 것이다.

특히 從前까지의 北韓의 強硬路線 一辺倒를 固執해온 北韓內 指導者들의 立場을 난처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對外面에서 불때 오늘날 모든 國際問題를 對決이 아니라 協商에 依해서 解決하며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을 維持함으로써 東西 緊張을 緩和하여 平和共存에 依한 새로운 國際政治秩序의 模索이 國際勢力의 主流를 이루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對外面에서의 南北韓의 共同步調는 바로 이러한 國際情勢에 呼應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國際的 輿論의 支持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세째, 國際社會에서 韓半島의 緊張이 크게 緩和되어 戰爭이 勃發할 可能性이 매우 稀薄해진 것으로 認識되어 先進國의 對韓 直接 投資가 活潑해질 것이다.

또 借款을 비롯하여 技術導入에도 有利할 것이며 觀光客 誘致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네째 우리 民族과 文化의 優秀성을 國際社會에 誇示하게 될 것이다.

世上사람들은 韓半島에서의 民族相爭을 보았으며 또한 民族的 分裂을 날이 갈수록 深化되어 가고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對外的으로 共同步調를 取하여 스포츠 分野에서 單一팀을 構成하여 善戰한다던가 自己固有의 文化研究를 위해서 史料를 調査하여 또한 古蹟을 탐사한다던가 또는 民族藝術을 公演하는 경우 그들의 韓民族을 보는 눈은 달라질 것이며 우리 文化의 아름다움과 傳統性에 對해서 새삼스러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 國民은 長期的인 生活計劃을 세워 安定感을 갖고 生活計劃을 세워 安定感을 갖고 生業에 從事할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될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國家發展에 크게 寄與가 될 것이다.

이에 反해서 20余年동안 共產獨裁下에 自由와 權利를 剝奪 當한채 外部世界와의 接觸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北韓住民들에게 韓國의 實態는 勿論 世界의 動向을 認識시키는 機會를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北韓住民들의 認識은 중국적으로 金日成唯一思想으로 굳어가는 意識構造의 變化可能性을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對外共同步調가 實現되는 경우 期待되는 成果를 보면 結果적으로 非政治 分野 優先 解決을 主張하는 韓國의 段階的인 對北接近戰略이 實現되는 結果가 招來하여 北韓의 政治·軍事·優先 解決立場의 虛構性이 저절로 暴露되는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의 對外的 共同步調를 實現하는 경우 우리에게 不利한 影響을 끼치는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問題點은 韓半島赤化를 窮極目標로 하는 北韓의 革命戰略에서 由來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은 對外的 共同步調를 民族問題라는 이름으로 美化시켜 對南赤化戰略에 利用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北韓은 이 對外的 共同步調를 逆利用하여 그들이 機會 있을 때 마다 主張해온 民族統一 戰線 形成의 好機로 誤判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同時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6.25 韓國戰爭과 共產 虐政을 經驗하지 못한 年令層인 젊은 世代는 韓國이 韓半島에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것을 忘却하고 南北韓이 同等한 것으로 錯覺할 可能性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北韓의 偽裝된 平和攻勢에 말려들 危險性이 있다는 點이다.

또한 對外面에서 볼 때 國際社會에서 南北韓이 同等한 位置에 있는 것으로 認識되어 20余年間 우리가 쌓아 올린 國際的 地位의

優位를 維持하기가 어렵게 되고 逆으로 北韓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켜 급기야는 그들이 높이고 있는 유엔에의 南北同時加入을 促進시키는 結果가 되어 급기야는 두개의 韓國觀을 固定시킬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北韓과의 交流圈을 增大시키는 結果가 될 뿐만 아니라 北韓에 對한 投資를 增大시켜 北韓의 戰力을 強化시킬 것이다.

勿論 上記의 이러한 問題點은 南北韓의 對外的 共同步調 結果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事前措置로서 그러한 問題點을 處理하고 警戒해야 하는 것은 不問可知的 일이라 하겠다.

그러면 南北韓의 對外的 共同步調를 實現하는 경우 北韓이 얻을 수 있는 明確한 利得이란 무엇인가?

첫째 北韓은 對外的 共同步調를 取함으로써 國際的인 存在 認定을 얻을 수 있게될 것이다.

그리고 相對的으로 北韓의 國際的地位가 向上되어 北韓의 對西方 外交가 有利해질 것이다.

둘째, 北韓은 韓半島의 代表權을 對外的으로 兩分, 認識시키려는 現實主義的 立場의 達成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對外的 共同步調 實現으로 부터 北韓이 얻을 수 있는 利得을 推理 分析해 볼 때 南北韓間에는 對外的 共同活動分野에서 相互 利益을 찾을 수 있는 共通點이 存在한다 하겠다.

따라서 對外的 共同步調問題를 提起함으로써 南北對話는 現時點에
서의 意見 不一致와 停滯性을 다소나마 克服하여 前進할 수 있을
것이며 南北對話의 持續 發展 程度에 따라 南北緊張도 比例해서
緩和될 것으로 생각된다.

○ 附 錄

南北韓國際機構加入現況比較

1. 韓國加入國際機構
2. 北韓加入 國際機構
3. 南北同時加入 國際機構

1 . 한 국 가 입 국 제 기 구

가. 유엔전문기구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49.11.25	로 마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50. 6.14	파 리
세계보건기구 (WHO)	49. 8.17	제 네 바
국제통화기금 (IMF)	55. 8.26	워 싱 톤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55. 8.26	" "
국제개발협회 (IDA)	61. 5.18	"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52.12.11	모 트 리 걸
만국우편연합 (UPU)	49.12.17	베 른
국제전기통신연합 (ITA)	52. 6.30	제 네 바
세계기상기구 (WMO)	56. 3.16	" "
정부간해사협의기구 (IMCO)	61. 4.16	런 던
국제금융회사 (IFC)	64. 3.16	워 싱 톤
나. 유엔직속 기구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국제연합아동교육기금 (UNICEF)	50. 3.25	
국제연합개발계획 (UNOP)	59. 1. 1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ECAFE)	54.10.20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국제연합마약위원회 (CND)	63. 1. 1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 (UNCTAD)	65. 1. 8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UNIDO)	67. 1. 1	
유엔자본개발기금 (UNCPE)	68. 1. 1	

다. 정부간 국제기구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인도태평양어업이사회 (IPFC)	50. 1. 19	방 록
국제미곡위원회 (IRDC)	53. 12. 10	"
국제수역사무국 (IOE)	53. 11. 18	파 리
국제소맥이사회 (IWC)	53. 12. 31	런 던
국제의학위원회 (ICMMP)	55. 10. .	리 에 즈
국제면화자문위원회 (ICAC)	54. 3. 1	위 싱 톤
국제수로국 (IHB)	57. 1. 1	몬 테 칼 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57. 8. 8	비 엔 나
국제관설관광기구 (IUOTO)	57. 11. 8	제 네 바
국제석리사회 (ITC)	58. 4. 21	런 던
국제도량형위원회 (IBWM)	59. 7. 28	제 루 부
아시아생산성기구 (APO)	61. 4. 14	동 경
국제해양학위원회 (IOC)	61. 7. 10	파 리
국제교육국 (IBE)	62. 2. 27	제 네 바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회 (AOPU)	62. 4. 1	마 니 라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EROPA)	64. 11. 7	"
코롬보계획	62. 11. 15	코 롬 보
아시아, 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AARRO)	63. 2. 19	뉴 데 리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67. 4. 14	제 네 바
아시아개발은행 (AOB)	65. 12. 4	마 니 라
아시아태평양이사회 (ASPAC)	66. 6. 16	
국제문화재보존부흥연구소 (ROME CENTER)	68. 7. 22	로 마
아.아법률자문 (AALCC)	70. 1. 28	뉴 데 리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70. 8. 28	마 드 러 트
국제설탕기구	72. 8. 31	

라. 민간기구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아시아 방송인협회 (ABC)		동 양
아시아도서관협회연맹 (AFLA)		"
아.아경제협력기구 (AFRASEC)		카 이 로
아시아반공연맹 (APACL)		사 이 곤
문화자유회관 (CCF)		파 리
국제항공연맹 (FAI)		"
국제민주변호사협회 (IADL)		부 룯 셀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국제 항공연맹 (FAI)		파 리
국제 라이온스크럽 협회 (IAL)		시 카 고
국제아. 아무선 연맹 (AIRU)		웨스트 하-드 퍼드 (미)
" 항공운수협회 (IATA)		몬 트리 올
" 변호사협회 (IBA)		뉴 욕
" 상업회의소 (ICC)		파 리
" 자유노동조합연맹 (ICFTU)		부 룯 셀
" 저작권협회 (ICS)		함 블 그
" 과학연맹평의회 (ICSU)		로 - 마
" 여성평의회 (ICW)		파 리
" 영화협회 (IFFA)		"
" 기자연맹 (IFJ)		부 룯 셀
" 도서관협회연맹 (IFLA)		문 헨
" 체육연맹 (IFPE)		단 펜 스
" 주택협회 (IHA)		뉴 욕
" 호텔협회 (IHA)		파 리
" 인도윤리연맹 (IEU)		유도레히도 (화)
" 인권연맹 (ILRM)		뉴 욕
" 경찰기구 (INTERPOL)		파 리
" 올림픽위원회 (IOC)		로 - 마
" 펜클럽 (IP)		론 돈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국제출판업자협회 (IPA)		츄 립
" 신문인협회 (IPI)		"
" 가족계획연맹 (IPPF)		론 돈
" 의원연맹 (IPU)		주 네 브
" 적십자 (IRC)		"
" 도로연맹 (IRF)		와 싱 톤
" 표준화기구 (ISO)		주 네 브
" 국제연극협회 (ITI)		론 돈
" 건축가연맹 (IUA)		파 리
" 지방자치단체연맹 (IULA)		헤 그
" 청년회의소 (JIC)		마 미 아 미
적십자연맹 (LRCS)		주 네 브
아시아통신사기구 (OANA)		뉴 턴
태평양지구관광협회 (PATA)		샌프란시스코
국제공공사업협회 (PST)		론 돈
" 우편통신전화협회 (PTTI)		베 문
" 로-타리클럽 (RI)		에 박스 턴 (미)
세계연맹 (UL)		헤 그
" 소녀단협회 (WAGGS)		론 돈
" 연방주의자국제협회 (WAWF)		샌프란시스코
" 교회회의 (WCC)		주 네 브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세계교직단체연합회 (WCOTT)		와 싱 톤
" 평화회의 (WCP)		론 돈
" 국제연합회연맹 (WFUNA)		쥬 네 브
여성국제민주연맹 (WIDF)		베 르 린
세계재향군인연맹 (WVE)		파 리
기독교청년세계연맹 (YMCA)		쥬 네 브
세계기독교여자청년회 (YMCA)		"
아시아의장연맹 (APU)		동 경

2. 북한 가입 국제기구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세계민주청년연맹 (WFDY)	47. 6.	부다페스트
국제민주여성연맹 (WLDF)	46.10.14	베르린
세계직업연맹 (WFTU)	47. 5.17	프라하
건물목재건설자재공업노동조합연맹	47. 7.14	헬싱키
국제광업노동조합연맹 (MTUI)	47. 7.14	파리
국제금속기계공업노동조합연맹	64. 6.27	프라하
세계교직자단체연맹	49. 3.	파리
국제학생연맹 (IUS)	48. 6. 7	부다페스트
국제식품, 담배, 음료산업, 호텔, 카페, 레스토랑, 근로조합연맹	49.11.13	쏘피아
국제농업, 임업근로자, 조합연맹	49.12. 5	프라하
국제석유, 화학공업부분 근로자조합	50. 3.12	부다페스트
국제언론인기구 (IUJ)	58. 8.17	프라하
아세아, 태평양지역평화연락위원	52.10.13	북경
국제라디오, 텔레비전기구	54.11.29	프라하
” 운수항만, 어업근로자조합연맹	55. 3.12	”
” 민주법률가협회 (IADL)	55. 4.23	브르셀
” 공무원, 종업원, 노동조합	55. 4.15	베르린
” 모성 (母性) 상설위원회	55. 7.	베르린
” 건축가연맹 (IUA)	55. 7.	파리
” 배구연맹 (IVBF)	56.12.	파리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합동 핵연구기구 (JINR)	56.12. 3	두 브 나
사회주의국가공중위생각료회의		
사회주의국가규격기구대표자회의	56. 2.26	프 라 하
서부태평양어업연구위원회	56. 6.12	북 경
주제 식물보호금역회의		
사회주의국가농업 및 어업부문 과학사업조정위원회	56.10. 5	쓰 피 아
국제 사격협회 (ISU)	56.10.24	바 이 스 바 덴
국제 아마츄어 농구연맹	56.12. 3	문 헨
국제 탁구연맹	57. 3.	런 던
국제 아마츄어 권투연맹	57. 4. 7	런 던
국제 스케이팅협회	57. 6.28	디보스 스위스
국제 지구물리학위원회	57. 7.	파 리
철도 협조기구 (ORC)	56. 6.	바 르 샤 바
세계 과학자연맹	56.12.	런 던
국제 항공연맹 (IAF)	57. 9.	파 리
사회주의국가관광기구회의		
적십자사연맹	56. 5.	제 네 바
국제 인형주연맹	57.12.	프 라 하
체신 협조기구	57. 4.25	비 엔 나
아시아, 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57.12.	카 이 로
국제 축구협회연맹	58. 6. 5	주 리 히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국제 체조연맹	58. 7. 5	베 오 그 라 드
국제방직, 피복, 피혁노동조합	49. 6. 20	프 라 하
세계평화운동 에스페란토협회	59. 5	플멘, 오지리
사회주의국가청각기구대표자회의		
국제아마추어레슬링연맹	58. 7	파 리
국제상업일군노동조합	59. 6	프 라 하
사회주의국가체육기구대표자회의		
국제역기연맹	59. 6. 28	파 리
국제자전거연맹	60. 3. 5	파 리
아세아, 아프리카경제협력기구	60. 5	카 이 로
국제항결핵동맹	60. 9. 8	파 리
사회주의국가측지학회의		
국제필름라이브러리동맹	60. 10	파 리
사회주의국가민간항공기구대표자회의		
국제공술연맹	61. 8	런 던
국제천문학동맹 (IAU)	61. 8	런 던
국제과학영화협회	61. 9	"
사회주의국가재정각료회의		
국제과학연맹이사회	59. 4. 1	런 던
국제영화촬영기술협회연맹	61. 9	파 리
사회주의국가사회보장스포츠대표자회의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62.2	로 잔 느
사회주의국가보험기구대표자회의		
사회주의국가보험기구대표자회의		
국제아마츄어육상연맹	62.9	런 던
국제자연부원보호동맹	63.11.21	부 라 셀
아세아경제국		
아세아, 아프리카기자협회	63.4	자 카 르 타
국제규격화기구	63.6	제 네 바
국제아이스하키연맹	63.8	런 던
국제전기공학위원회	63.10	제 네 바
가네포연맹	63.2.5	자 카 르 타
국제요트경기연맹	63.11.30	런 던
국제아마츄어수영연맹	63.12	도 표
국제스키협회	64.1.30	스 위 스
국제조정연맹	69.8	"
국제카누연맹	64.2	스 투 호 림
아세아산업보건대회		자 카 르 타
국제유도연맹	64.7	도 표
국제로양학협회	64.8	암 스 텔 담
아세아, 아프리카보험, 재보험연맹	64.9	카 이 로
아세아, 아프리카의학학술대회	64.10	카 이 로

기 구 명	가 입 일	소 재 지
국제수학동맹	64.12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대회	58.10	콜 롬 보
아세아, 아프리카법률학자협회		
아세아, 아프리카 소아과대회		
아세아, 베이징탁구초청경기연락위원회	64.10	북 경
국제우포수집가연맹		
국제양봉업자기구		
아세아대륙가네포위원회		
국제대학생연맹 (FISU)	65. 8. 1	루 벨 (벨지움)
국제지질학연맹		
세계가금 () 협회		
국제수력연구협회		
아세아, 아프리카주택기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단결기구	66. 1.	아 바 나
국제역사, 과학위원회	70. 8.	모 스 코 바
친선군대 체육위원회	58. 3.	"
아세아경제세미나드	62.11.	코 롬 보
아세아, 태평양지역항만노동자대회	63.10.	런 던
국제불교도회		
" 시설제사조합	55. 7. 11	
" 전기기술위원회	63.11.21	
" 학기경기연맹	63. 7. 14	부 라 셀
" 헨싱경기연맹	68. 5.	파 리
세계평화이사회	49. 4.	스 투 호 림

3 . 남 북 동 시 가 입 국 제 기 구

순위	기 구 명	순위	기 구 명
1	세계민주청년연맹 WFDY	17	국제아마츄어레슬링연맹
2	국제모성상설위원회	18	" 공술연맹
3	세계불교도회	19	" 자전차경기협회
4	세계적십자연맹	20	" 축구협회연맹
5	국제설계자연맹	21	" 체조협회연맹
6	아세아, 아프리카경제협력기구	22	" 아이스하키연맹
7	국제항공연맹	23	" 올림픽위원회
8	국제전기기술위원회	24	" 사격협회
9	국제과학연맹이사회	25	" 스케이팅협회
10	국제표준화기구	26	" 스키협회
11	국제측지및지구물리학연맹	27	" 탁구협회
12	국제항결핵연맹	28	" 배구협회
13	국제아마츄어육상연맹	29	" 역도협회
14	" 농구연맹	30	" 대학 체육연맹
15	" 권투연맹	31	" 보건기구 (WHO)
16	국제아마츄어수영연맹	32	" 국제의원연맹 (IPU)